

# OpenDoors

2020. 12. Vol. 224

박해와 선교현장

콜롬비아 *Colomb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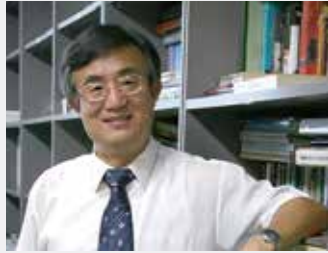
TALK

“한국오픈도어선교회”로 검색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 본질 회복의 축복

김성태 교수(한국오픈도어 공동대표/이사장)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비판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도 바울이 지적한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경과 시련이 몰아치면 쪽정이와 알곡이 구별됩니다. 감사한 것은 오랫동안 계속되는 코로나 전염병의 위협 하에서 고통이 있고, 때론 안타까운 희생도 있으나 기독교인들의 본질을 회복시키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다고 하지만 몸과 마음이 바빠서 천국의 소망을 희미하게 간직하고 있던 교인들이 전염병의 시련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게 되고, 부활의 생명을 사모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지만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서 감사를 잊고 지내고 있다가 전염병의 시련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게 됩니다. 거의 일 년여 계속되는 전염병의 위협 가운데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제한을 받는 비정상적 상황 가운데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 생활하는 고난 받는 기독교인들의 삶을 다스나마 체험하게 됩니다.

국제오픈도어선교회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의 모든 교회와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예상하고, 비상상황으로 간주하여 금년에 정해진 예산의 15퍼센트 정도를 삭감할 것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말을 맞이한 현 시기에 전 세계의 후원자들로부터의 후원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난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산삭감 계획은 없었던 일이 되었습니다. 저희 북한 선교현장에서 동요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독교인들의 본질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 선교회에게는 코로나 전염병의 위협은 고통이지만 동시에 축복이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꾸준히 북한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며, 후원금을 모금하여

보내오던 북유럽의 한 선교기구가 금년에 두 배의 후원금을 보내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북한을 위해 월말 기도회를 드리는 러시아 현지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북한 선교 후원금을 보내오셨습니다. 본 선교회를 후원하는 후원 교회와 후원 교인들께서 이전보다 더욱 풍성한 후원금을 보내오시면서 코로나 전염병과 기증되는 핍박으로 고통 받는 전 세계의 고난 받는 교인들을 섬기는데 앞장을 서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해가 됩니다. 주님께서 신앙인의 본질을 회복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북녘의 교인들에게 금년 한 해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지금도 시련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유엔의 경제제재로 이미 어려워진 생활형편 속에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봉쇄와 경제활동의 심한 통제는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더욱 고통을 겪게 하였습니다. 더욱이 세 번이나 몰아친 태풍으로 인한 전국적인 피해는 북한 주민들을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갔습니다. 북한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려는 어떤 시도 없이 오히려 80일 전투를 외치며 자력갱신 운동을 벌입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자력갱신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북한교인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시기적절하게 열어 주십니다. 그때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북한교인들을 돕는 비밀작전들이 진행이 됩니다. 비록 코로나 전염병 시기 이전과는 다른 규모와 제한된 물품들이 보내어지지만 북한교인들을 돕게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고레스도 아하수에도 왕도 사용하십니다. 때론 예루살렘의 당나귀를 예비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북녘교인들의 인사를 전달합니다. 감사합니다.

## CONTENTS



04 북한선교현장 - '42'번 죄수 이야기



08 박해와 선교현장 - 콜롬비아

12 콜롬비아스페셜 1 - 다시 대량학살의 위협에 처하다

15 콜롬비아스페셜 2 - 콜롬비아 엔리케 목사님에게 듣다

16 현장스토리 1 - 순교자 목사님 딸 '다니엘라' 이야기

18 현장스토리 2 - PK소년 '티모테오' 이야기

20 현장스토리 3 - 콜롬비아 원주민 마을 교회 이야기

22 후원 캠페인



### OpenDoors 2020년 12월호 | 통권 224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 \_ 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_ 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_ 김명재, 김영복 목사  
 이사회 \_ 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김성곤, 박윤환,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안창호 이사  
 사무총장 \_ 정규일 목사  
 정보/행정/재정/홍보 \_ 최임경, 문민환, 전신애 간사  
 북한선교 \_ 제나, 이다니엘, 레아, 수지, 제시카, 노을, 요한 간사  
 발행처 \_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 및 디자인 \_ 제이앤피

〈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결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 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오픈도어선교회: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내 이름은 죄수 “42번” 입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에서 복송되어 북한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다시 교화소로 이송되었던 한 북한 성도의 실화입니다. 다른 감옥의 설명이 더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북한성도들의 수많은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감옥과 교화소의 끔찍한 상황들은 안타깝게도 모두 비슷합니다.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러한 투옥과 수감생활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즉결 처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수천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매일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 5~7만 명의 성도들이 수감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42번 자매와 같은 크리스천들은, 중국에서 비밀리에 받은 영적 육적 지원과 훈련으로, 북한에 돌아가서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교회가 성장하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결코 마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름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자유를 빼앗깁니다  
그 다음엔 건강을 빼앗기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빼앗기고  
옷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머리카락까지도.  
마지막으로 낮에 빛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똑.. 똑.. 떨어지다가 마르는 수도꼭지처럼,  
오직 정신과 육체 외에는 아무것도 안 남게 됩니다.

매일 아침 8시, 42번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나는 일어서서 손을 등 뒤로 모으고 간수들을 따라 취조실로 가야합니다. 간수들을 쳐다보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들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같은 일이 매일 반복되지만 여전히 너무 두렵습니다. 매번 그들은 “42”번을 부르고, 때리고 발로 찹니다. 귀를 때릴 때가 가장 아픕니다. 몇시간이고 귀가 웅웅 울립니다. 때로는 그렇게 며칠씩 잡니다.

## 끝나지 않는 심문

매일 아침 취조실에서 1시간씩 심문을 당해야 합니다. 매일, 똑 같은 질문을 묻습니다.

“왜 중국에 있었나?”

“누구를 만났나?”

“교회에 갔었나?”

“성경을 가졌나?”

“남조선 사람을 만났나?”

“너는 기독교인이냐?”

이 심문이 끝나면, 나는 감방으로 돌려 보내졌습니다. 내 감방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겨울과 여름에는 기온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크기는 너무 작아서 겨우 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서는 눕는 것도 많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먹을 쥐고 앉아있어야 했습니다. 무릎과 주먹을 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장소는 사람이 살 곳이 못되었습니다. 간수들에게는 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나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 우리에게 갇혀 있고, 무거운 문이 쾅 닫히면 희미한 빛 속에 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나는 기독교인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중국에서 크리스천들에게 도움을 받은 것을 인정하면 나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빨리 죽든가 천천히 죽든가 죽습니다.

## 몰랐던 신앙 유산

내가 아는 첫 기독교인은 우리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요. 일요일마다 할아버지는 나에게 집 밖으로 나가서 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유를 몰랐



고 나가기 싫었지만 할아버지는 나를 내보내셨어요. 내가 북한의 기근 때문에 중국으로 탈출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다른 기독교인들을 만났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 속에서 나는 우리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둘러앉아 계셨는데 가운데에는 성경책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모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꿈 속에서, 나는 할아버지에게 소리쳤습니다. “나도 믿어요!” 나는 예수님께 내 삶을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나는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북한에서.

하루는, 중국의 거리를 걷고 있는데, 검은색 차가 내 옆에 섰습니다. 나는 내게 길을 물어보려는가 했는데, 운전자와 남자들이 차에서 내리더니 나를 붙잡았습니다. 나는 저항을 했지만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나를 차 속으로 밀어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차가 출발하면서 나는 내 인생이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중국 감옥에 들어간지 몇 주 후에, 나는 북한으로 이송되었고, 이 수용소로 넘겨졌습니다. 그들은 내 옷을 다 벗기고, 내가 뭔가, 특히 돈을 숨기지 않았는지 찾으려고 살살이 몸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까지 삭발을 시키고 이 감방에 넣었습니다. 그들은 내 옷이 아닌 맞지 않는 다른 옷을 입게 했습니다. 아마도 이전 수감자가 입었던 옷 같습니다. 죄수복 겹옷에는 42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거쳐갔던 42번들 중의 한 명이 된 것이죠. 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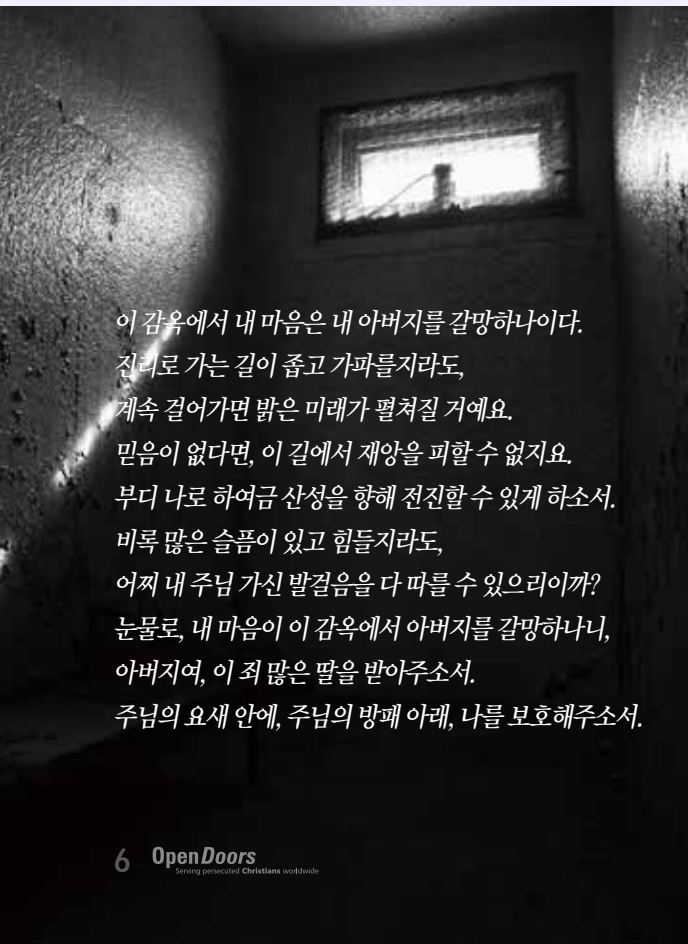


궁금했습니다: 이전 42번은 어떻게 되었을까? 죽었을까? 처형된 걸까? 굶어 죽었을까? 맞아서 죽은 건 아닐까? 아니면 그냥 수도꼭지가 마르듯 서서히 죽어갔을까?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으나 살아있다고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북한의 감옥상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생존 자체가 영웅적인 이야기인 것을 압니다.

## 혼자이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여기 독방에 갇혀 혼자입니다. 다른 감방에 죄수들이 있지요. 그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볼 수는 없어요.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간수들의 그림자와 감방의 좁은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 한 줄기, 달빛 한 줄기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는 기도 뿐입니다. 마음 속으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소리내어 할 수는 없고 마음 속으로 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머리 속으로 지은 찬양을 부릅니다.



이 감옥에서 내 마음은 내 아버지를 갈망하나다.  
진리로 가는 길이 좁고 가파를지라도,  
계속 걸어가면 밝은 미래가 펼쳐질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이 길에서 재앙을 피할 수 없지요.  
부디 나로 하여금 산성을 향해 진진할 수 있게 하소서.  
비록 많은 슬픔이 있고 힘들지라도,  
어찌 내 주님 가신 발걸음을 다 따를 수 있으리이까?  
눈물로, 내 마음이 이 감옥에서 아버지를 갈망하니,  
아버지여, 이 죄 많은 딸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요새 안에, 주님의 방패 아래, 나를 보호해주소서.

여기 갇힌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느 날, 내 번호가 불려도 나는 움직이지 않겠지요. 여기서, 어둠 속에, 나는 죽어 있겠지요. 저들은 내 시체를 버릴 것이고 다음에 들어오는 죄수가 내가 입었던 죄수복을 입고 새로운 42번이 되겠지요. 그들이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나처럼 맛고 나처럼 온몸에 멍이 들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는 유일한 분께 부르짖을까요? 그들은 여기서 죽을까요, 나처럼?

*그러나 죄수 42번은 죽지 않았습니 다. 그녀의 삶은 고통스럽고 끔찍했지만 살아남았습니 다. 마침내 그녀는 감옥에서 나와 재판을 받았습니 다.*

재판을 받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승리입니다. “정 치범”이나 “예수를 믿는 죄”로 노동수용소에 보내지는 사람들은 재판에 의해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감 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끈질기게 혐의를 부인한 것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나를 변호해줄 변호사는 없었습니다. 내 뒤에는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고 나는 판사 앞에 섰습니다.

남편이 법정에 와있었습니다. 남편은 울었던 게 분명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슬픈 남편의 눈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판사는 남편에게 나와 이혼하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갈라진 목소리로,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소리에 나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남편은 우리 가족을 위해 그런 결정을 내려야했습니다.- 남편이 나와 이혼을 안하면 아이들이 모두 처벌을 받을 것이니까요.

그리고, 나는 4년간의 노동교화형을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노동교화소(재교육캠프)에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하루에 12시간 노동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보다 더 많이 합니다. 하루하루가 긴 악몽과 같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나는 이제 독방에 혼자 갇혀 있지

는 않아요. 1년 동안 독방에 갇혀 있는 동안 나는 햇빛 한번 쬔리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독방에서 나와 이송 되면서 피부에 바람이 스치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 노동교화소에 처음 도착했을 때, 나는 무언가 형체가 없는 것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참 들여다 보니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사람들, 팔이나 다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 팔다리를 돌아봤습니다. 너무 말라서 성냥개비 같았지요. 나도 다른 수감자들보다 별로 나을 게 없는 꼴골이었습니다.

## 감옥 안의 교회

한달 전, 나는 병이 나서 (노동을 안하고) 바라크에 있어도 되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나는 혼자인줄 알았는데 구석에서 담요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담요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 담요 아래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담요를 향해 살금살금 가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들릴락말락 했지만 어딘가 익숙한 소리였어요.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한 여자가 기도하고 있는 거였어요. 나는 내 자리로 돌아와 그 후 며칠간 그녀를 주시해서 보았습니다.

한 주일쯤 후에, 우리가 밖에서 노동을 하고 있을 때,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는 그녀에게 가서 속삭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 그녀의 얼굴은 충격으로 하얘졌습니다. 누가 우리 말을 엿들었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 둘 다 사살될 수 있다는 걸 아니까요. 그러나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그녀는 나에게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수용소 안에서 하나의 비밀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안전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같이 주기 도문으로 기도하고 성경말씀을 암송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나보다 훨씬 용감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나눴습니다.

아마도 그 때문에, 하루는, 차 한대가 그녀를 데리러 왔 습니다. 그녀가 떠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들이 그녀를 ‘관리소’, 죽음의 수용소로 데리고 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그녀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나는 여기 내 바라크에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어제 내가 풀려날 것이라는 발표가 났습니다. 나는 2년째(4년형 중에) 복역중이 었습니다. 나는 나가면 가장 먼저 남편과 아이들을 찾아볼 거예요. 아이들은 이제 훨씬 더 컸겠지요. 몇 년째 못 봤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셨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게 지켜 주셨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을 때에도, 더 이상 나을 물이 없는 수도꼭지처럼 느껴질 때에도, 예수님이 내게 생수를 주셔서 계속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쓰러질 것 같을 때에도,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을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 주시고 내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도와 주셨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믿습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 아이들을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마다 지켜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이 사랑의 하나님을 전할 것입니다!

## 북한의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 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 콜롬비아

## Colombia

인구 : 49,850,000명

주요 종교 : 기독교(94.8%)

기독교 인구(카톨릭 등 포함) : 47,237,000명(2.0%)

기독교박해 순위 : WWL2020- 41위, WWL2019- 47위

기독교박해 지수 : 62점

주 박해 요인 : 불법무장단체들, 원주민 공동체, 조직화된 부패와 범죄



### 콜롬비아에서 크리스천들은 왜 박해를 받는가?

콜롬비아에서 크리스천 박해의 가장 큰 원인은 공산주의 좌파 무장단체 및 기타 범죄단체들이다. 콜롬비아 정부와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이 2016년 11월 24일에 영구적 평화협정을 맺고 FARC는 게릴라단체를 벗어나 합법적 정치정당의 지위를 갖게 되어 한동안 폭력이 줄었으나 평화협정의 구체적 이행 의지가 부족하고, 협정의 법정 안전성이 잘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FARC외에 무장단체인 민족해방군(ELN)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전 FARC의 일부 대원들이 재결성한 무장단체와, 기타 범죄단체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FARC가 떠난 지역들에서도 폭력과 갈취, 살해의 위협이 심하다. 정부는 평화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교회와 기독교기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권장하지만 이때문에 교회는 더 위협에 처해졌다. 한편 휴먼라이츠(HumanRights) 보

고에 의하면 정부보안국이 범죄단체들과 협력하거나 그들의 활동을 묵인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부패문제 또한 박해가 지속되게 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폭력 범죄단체들 외에는 원주민 공동체가 크리스천을 박해한다. 마지막으로 도시 지역에서는 최근에 무신론 세속주의 과격파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

### 콜롬비아 무장세력들

2019년 국제적십자사위원회(ICRC)에 의하면, 현재 콜롬비아에는 5가지 무장충돌이 있다. 그 중 4가지는 정부군과 무장조직들(ELN, EPL, AGC, 평화협정에 동의하지 않는 FARC 잔당) 사이의 충돌이고, 마지막 한 가지는 무장세력 ELN과 EPL 사이의 충돌이다. 이 외에도 "무장 조직들(GAO-구 BACRIM)"로 일컬어지는 범죄단체들이 있다. 이 모든 무장단체들의 활동은, FARC가 합법적 정당이 된 후에, "불법적 질서"를 놓고 벌어지는 영역 다툼이다. 뿐만 아니라 걸프 카르텔과 같은 외국 카

르텔들과의 동맹단체들도 있다. 결국 폭력, 위협, 갈취, 납치 등의 수단을 통한 이들의 사회적 공격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2018/2019년 동안 살인과 국내난민발생이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FARC 평화협정의 이행에 관련한 시골 지역 지도자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살해되었다.

### 마약밀매/불법경제활동과 박해

마약과 불법 채굴을 포함한 불법경제활동은 여전히 폭력과 위협의 근원이다. 마약을 만드는 불법작물 대체 작물 재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정들은 살해협박을 받는다. 유엔보고에 의하면 코카 재배면적이 2017년 169,000헥타르에서 2018년 171,000헥타르로 줄어들었지만, 코카 재배량은 더 늘어났다. 일부 지역의 집중적인 코카 재배는 문제가 점점 더 복잡적으로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골지역에서 활동하는 무장단체들과 마약밀매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으로 살해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게릴라들과 범죄단체들이 마약재배 또는 밀매의 목적으로 어떤 마을을 소유하려고 할 때 우선 지역주민들에 대해 권위를 휘두른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과 여성 심지어 어린이들까지 모집하려고 한다. 특히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을 장악한 이들은 자기의 불법적인 활동에 반대하거나 장애가 되는 이들의 입을 막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마을 지도자들이 희생자가 된다. 특히 인권옹호, 부패방지, 정치, 청년지도 등에 관련한 지도자들이 더 큰 위협에 처하게 된다. 2019년 9월에 발간된 보고에 의하면, 2019년 1월부터 9월초 기간에만 155명의 인권활동가들이 살해됐다. 크리스천이 되어 범죄단체를 탈퇴한 이전 게릴라 멤버들에 대한 보복도 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이러한 불법 무장단체들과 정부 관료들이 결탁하여 부패와 범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마약밀매업자들과 게릴라들이 흔히 접근하는 원주민 공동체의 일부 지도자들은 원주민 크리스천들을 다시 전통 종교로 돌아오도록 강요하기 위해서 범죄단체들에 의지하기도 한다. 원주민 마을에서 정부군과 범죄단체들, 범죄단체들 간의 충돌로 인한 폭력지수는 매우 높다.

### 콜롬비아 원주민

콜롬비아에는 115개 원주민 공동체(마을)가 있는데 그중 22개는 2018년에 발견되었다고 한다. 다른 보고에 의하면 102개이고 84개 이상이 공식적으로 정부 기관에 보고되어 있다. 원주민의 총 인구수는 약 200만명이며 원주민의 인구증가율이 도시인구 보다 높아서 2005년 전체인구의 3.4% 였던 비율이 2018년 4.4%가 되었다. 원주민 마을에서 종교적 요소는 공동체의 중요한 요소이다. 크리스천들은 전통관례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다. 원주민 지도자들은 기독교를 공동체의 불안요소로 본다. 정부도 원주민의 전통과 관련되는 종교적 자유는 보호하려고 하지 않는다. 선교사도 적대시하며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원주민들은 결과적으로 감금, 신체적 학대, 재산 몰수, 기타 여러 형태의 처벌을 받는다. 대부분 라틴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종교의식들은 카톨릭과 혼합된 형태가 많다. 따라서 이들은 로마 카톨릭은 아니지만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는 더 관대하고 개신교 크리스천들에 대해서는 더 적대적이다.

### 콜롬비아내 난민

콜롬비아는 주변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은 난민들이 있다. 2015년~2018년 사이에 8백만 명이 난민으로 파악되었다. 그 중 98%는 국내난민이다. 대부분 Norte de Santander, Antioquia, Narino, Choco 지역에서 무장세력들의 충돌에 의해 발생한 난민들이다. 그리고 베네주엘라 난민들이 대규모 유입되었다. 2019년9월 기준 공식 집계된 콜롬비아에 거주하는 베네주엘라 난민 수는 1,488,373명이다.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이다. 이들의 유입으로 경제와 교육 및 기타 사회적 기본 구조가 영향을 받고 있다.

### 콜롬비아에서 크리스천들의 삶은 어떤가?

• **사적인 영역** : 범죄조직에 의해 장악된 지역 또는 원주민 마을에서 크리스천들은 마을의 전통 또는 범죄조직이 부파한 규칙들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과 고발을 당하기 때문에 다른 크리스천들과의 만남이 제한을 받는다. 기독교 자료는 전도를 목적으로 사용하



려는 것으로 간주되어 허락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범죄단체들은 팔아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일부 기독교 자료들을 빼앗아 간다. 이런 지역에서 크리스천의 기독교 상징물 소지나 개인적 종교행위도 위험하다. 이들이 불법단체를 떠나거나 고발하거나 잠재적으로 불법행위들을 위협하는 자로 보여 타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지역에서는 크리스천 방송이나 미디어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혹시 가능한 지역에서 그것을 전도에 이용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범죄집단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전하면 보복을 당한다.

• **가정 영역** : 원주민 마을 지도자들은 '부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지 않도록 부모들이 자녀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게 막는다. 때로는 부족 지도자들이 크리스천의 자녀를 부족 전통을 지키는 다른 친척집에서 기르도록 지시한다. 범죄조직이 장악한 지역에서는 크리스천 자녀들이 ELN 등 게릴라들에게 사상주입을 당하는 것을 부모가 막기가 어렵다. 그러다가 살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범죄단체들은 청소년들을 세뇌시키려고 한다. 원주민 마을에서는 모든 교육과정에 부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르치기 때문에 크리스천 자녀들은 기독교신앙과 반대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도시에서는 지나친 세속화로 인해 신앙을 차별적이고 불관용적인 것으로 가르치고 다양한 성정체성을 가르치는 성교육을 받아야 하기도 한다. 일부 원주민 마을에서 크리스천 부모의 자녀들은 공동체 활동에서 제외된다. 범죄조직이 장악한 지역에서는 게릴라들이 특히 크리스천 가정의 어린이들을 모집해가려고 한다. 세속화된 학교에서는 기독교를 불필요하게 극단적인 신앙으로 보기 때문에 크리스천 자녀들이 놀림과 조롱의 대상이 된다. 세례식, 기독교적 결혼식과 장례식에 공공장소 사용 허가 받기가 어렵다.

• **지역공동체 영역** : 원주민 마을에서 크리스천들은 부족 전통 의식과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범죄조직들이 마을 지도자들을 통해 발표한 "새 규칙들"을 따르지 않으면 보복을 당한다. 이런 일부 지역에서는 크리스천들은 기본적인 사회적 혜택, 보건의료, 재정지원 등에서 제외된다. 기독교 활동을 중지시키려는 압력의 일환이다. 원주민 마을에는 부족 전통을

따르지 않는 크리스천에 대한 벌금 체계가 있다. 현금 또는 작물로 납부해야 한다. 범죄단체들은 신앙행위를 허락해주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다. 일명 '보호금'이다. 원주민 마을 지도자들은 크리스천들에 대한 감시체계를 이용한다. 정부의 치안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 범죄단체들이 지역당국의 역할을 하며 크리스천들에게 모든 활동보고를 강요한다.

• **국가영역** : 원주민들에게는 정부가 자율권을 주었기 때문에, 자체 규범을 정하고 부족 지도자들은 조상의 관습에 의한 라이프스타일을 부과한다.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은 공동체가 거부하도록 장려한다. 또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을 크리스천 책임으로 돌린다. 크리스천들은 종교적 양심에 반하는 경우에도 부족 관습을 따르도록 강요 받고, 범죄조직이 장악한 지역에서도 기독교 신앙 또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받는다. 크리스천들에 대한 차별과 학대는 처벌받지 않는다. 주범이 부족 지도자들이기 때문이거나 범죄조직 리더들과 부패한 공무원들이 결탁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사를 진행한다 해도 거의 실패한다. 과격한 세속주의 단체들의 교회와 크리스천 공격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사와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부 지역에서는 마약중독자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인권옹호 활동을 하는 기독교 기관들도 핍박을 당한다. 또한 명백한 기독교 신앙은 공공기관의 일부 세속화 야전다들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원칙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한다.

• **교회영역** :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와 그 가족들은 원주민 마을과 범죄조직 영역에서 특별히 타깃이 된다. 이들이 인권을 옹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평화협약의 이행을 촉구하고 범죄단체와 협력하기를 거부할 때 벌금과 특별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흔한 방법이다. 교회 지도자들은 공공장소에서 욕설과 신체적 폭행까지 당한다. 교회가 학교, 자선단체, 의료기관, 사회문화적 단체 등을 설립하는 것은 제지를 당한다. 청년청소년들의 마약중독 재활치료를 돕는 교회 관련 기관은 범죄단체들의 빈번한 타깃이 되어왔다. 청년청소년 사역은 자기들의 이익에 대한 '공격'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 한 너무 치안이 불안하여 기독교 단체들이 활동을 수행

할 수 없는 곳들이 있다. 원주민 마을과 범죄조직이 장악한 지역에서는 기독교 전파를 막기 위해 교회나 모임 장소의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다. 반면에 범죄단체의 돈 세탁에 이용하기 위해 교회 건축과 리모델링을 하도록 강요받는 경우도 있다. 도시 지역에서는 새로운 교회 건축들이 법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교회와 기독교 기관 단체들은 결혼과 가정에 대한 신앙적 신념을 표현하거나 실천하는데 제약을 받는다. 정부의 교육부가 세운 가이드라인(성교육 관련)을 교회와 기독교기관들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쇄와 벌금의 위협을 받는다. 세속국가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교회와 기독교단체들이 민감한 주제에 대해 공개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로, 교회와 기독교단체들은 빈번한 비판과 거부 낙인찍기의 대상이 된다. 교회가 생명, 성, 가정에 대한 관점을 표현하면 이념적 압력단체들이 그 메시지를 왜곡하여 '혐오발언-hate speech' 이나 차별적 발언으로 사회에 제시한다. 이를 목적으로 교회에 잠입하기도 한다.

\*법적으로 모든 교파가 동등하게 인정되지만 비카톨릭 종교 단체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약한 13개 단체에게만 종교단체의 법적 혜택을 주고 있다. 이 13개 단체에 들지 않은 교회들은 별도로 법적 지위 인정을 요구하고 내무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래야 후원금을 받거나 종교교육기관을 설립하거나 결혼식을 집례하거나 국내외의 다른 단체들과 협력할 수 있다. 이렇게 등록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는 등의 종교 활동은 할 수 있으나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받을 수는 없다.

## WWL2020 콜롬비아 박해보고

(2018년 11월 1일~2019년10월 31일 기간)

살해된 크리스천 수	16명
공격받은 크리스천 수	71명
체포된 크리스천 수	6명
공격받은 교회 수	40개
크리스천 소유의 집과 사업장 공격 건 수	6건

\*위의 통계는 정식 보고 건수로 실제로 다음과 같은 전체적 피해자 가운데 포함된 보고되지 않은 크리스천들의 수는 훨씬 많다.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10세 이하의 어린이 883명이 살해되

었다. 61건의 학살사건이 발생해 246명이 희생되었다. 그중 대부분이 청소년 청년들이다. 물론 지도자들이 우선적으로 살해되었다. 2019년에만 152명이 희생되었다.

## 콜롬비아 개신교회

1492년 스페인의 정복과 함께 로마 카톨릭이 들어와서 콜롬비아의 유일한 기독교 교파가 되었다. 1810년 콜롬비아가 독립한 이후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정치 지도자들 간에 마찰이 생겨나고 교회는 박해를 받고 예수회 같은 경우 추방을 당했다. 1886년 새로운 헌법이 카톨릭 교회를 국가적 단합의 기초로 인정하면서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가 재정립되었다. 개신교회로는 장로교회가 19세기 중반에 들어왔고, 20세기 초에 침례교와 기타 개신교단들이 들어왔다. 1960년대에 현대화, 도시화, 문자보급율 증가에 의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 때문에 종교적 지형이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했다. 미국으로부터 오순절 교파가 들어와 급속히 성장했다.

### 콜롬비아 기독교인 현황

정교회	10,400명 (0.0%)
카톨릭	43,641,000명(92.4%)
개신교 기성교단	1,468,000명 (3.1%)
독립교단	1,960,000명 (4.1%)
무소속	515,000명 (1.1%)
이중소속	-357,000명(-0.8%)
합계	47,237,400명(100%)

### 콜롬비아 교회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한번 이상 학살을 경험한 지역들(Antioquia, Cauca, Nariño, Norte de Santander, Putumayo, Bolívar, Córdoba, Chocó and Valle del Cauca)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이 지역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믿음에 견고히 서서 소망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세워줄 수 있기를 기도해주세요.



## 다시 대량학살의 위협에 처하다

콜롬비아 정부와 콜롬비아혁명무장군(FARC)은 2016년에 평화협약에 서명함으로써 52년간의 무력충돌을 종식시키고자 하였지만 여전히 폭력이 누그러질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8월까지 콜롬비아 전역에서 53건의 폭력사태로 2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이 어린 청년들이었습니다. 7월과 8월에만 10건의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평화와 개발 연구소(Instituto de Estudios para el Desarrollo y la Paz, Indepaz)에 의하면, 이 학살사건들은 옴부즈만 사무소에서 미리 경고했던 11개 지역 중 8개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지역들입니다. : Antioquia, Nariño, Cauca, North of Santander, Putumayo, Chocó, Córdoba, Valle del Cauca, Bolívar 학살사건들로 인해 많은 시골지역 주민들이 공포심에 거주지를 떠나야하는 난민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서로 라이벌인 두 무장 갱단이 충돌하면서 8명이 살해되자 4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콜롬비아 동부의 카타툼보 지역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크리스천 4가정도 포함되었습니다. 8월12일, 26가정이 고향인 콜롬비아 북부 볼리바르 지역의 작은 마을 누에보(Nuevo Paraíso)를 떠나 450킬로 떨어진 카리브해안 지역 막달레나(Magdalena)로 피난했습니다. 그 중 15가정이 크리스천으로 '천국 교회'(Iglesia El Paraíso) 교인들이었습니다.

오픈도어 파트너 사역자인 한 여자 목사님의 증언에 의

하면, 대규모학살이 일어나기 전에, 한 소위 민병대원들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일련의 개별적 살해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희생자 중의 한 사람인 한 누에보 주민은 크리스천 이웃에게 말을 빌리러 갔었는데 몇 시간 후에 여러 명의 남자들이 그 크리스천 이웃의 집으로 들이닥쳐 그를 위협하고 말을 빌려갔던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말이 돌아오는 소리가 나자 이들은 나가서 그 남자를 총으로 살해했습니다. 여러 발의 총소리가 들렸다고 나중에 그 말의 주인이 증언했습니다. 그는 시신을 수습한 후에 곧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집, 농장, 가축...

그 후, 마을에서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는 한 노인까지 살해되자, 26가정이 모두 그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떠난 것입니다. 살해된 노인은 불법 단체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희생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전한 목사님은, "그 노인은 좋은 분이었고, 누구와도 다툰 적이 없으며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왔고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또 싸울 힘도 없는 분인데, 그런 분까지 죽인다면, 누구든지 죽일 수 있다는 거지요."라고 말했습니다.

### 모두가 위협 아래 있다

당국은 일찍이 경고는 했지만, 대량학살과 개별적 살해가 자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해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8월29일, Semana 잡지는, 올해 들어 그때까지 옴부즈만 사무실로부터 시골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학대행위에 대한 초기 경고를 35차례 발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중 15건은 학살이 여러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였다고 합니다. 옴부즈만 보고서는 또한 긴 범죄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리스트에는 법을 무시한 처형, 불법 무장단체들의 어린이 강제 징집, 착취, 광산 사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픈도어 리서치팀의 설명에 의하면, 이러한 초기경고들은 새롭게 재편된 "콜롬비아 무장충돌의 혼란스러운 지도"를 반영합니다. 기존의 무장단체들이 계속적으로 발전해서 라이벌들을 퇴각시키고 있습니다.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갱들은 마을들을 정복해서 그 마을에서 자신들이 유일한 지배자임을 선포할 때까지 그 마을들을 포위합니다."라고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콜롬비아 시골 지역에서 불법무장단체들 사이의 충돌은 광대한 코카인 작물과 마약밀매 루트를 장악하기 위한 동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대부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카타툼보(Catatumbo 콜롬비아 북부의 강 이름) 시골지역연합회 회장(Elizabeth Pabón)은 이 단체들이 이 지역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흥미있는 것들이 많지요. 이 지역은 모두가 채굴하고 싶어하는 풍부한 천연자원들로 유명합니다."라고 연합회장은 설명합니다. "학살 사건 일부가 군사지역 근처에서 일어났는데도 아무도 반격을 안하더니 이해가 안가요.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하는거 같아요 나는 이 사실이 많은 의문을 제기한다고 생각해요."라고 연합회장은 말했습니다.

### 최근의 학살을 어떻게 설명할까

콜롬비아의 무장세력 충돌에 대한 전문가들은 이번 학살사건은 새로운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평화협약 이후로, 우리는 반군이 주로 활동하는 곳에서도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일반화된 무장충돌이 없었어요."라고 한 기관인 디파즈(Indepaz)의 책임자 곤잘레스(Camilo Gonzalez Posso)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공개한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여러 그룹들이 참

여하는 부분적 충돌들이예요: ELN(민족해방군) 이탈자들, FARC(콜롬비아혁명무장군)의 분파 조직들, 기타 소규모 잔여그룹들입니다. 이들의 대다수는 마피아 조직들에 속해 있습니다."라고 곤잘레스는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정치적인 목적이 없다고 곤잘레스는 말합니다. 이들은 정부나 정부군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하는 것은 합법적 또는 불법적 사업체들에게 안전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제적 마약 카르텔이 이러한 무장단체들의 물주입니다.

전문가인 곤잘레스는 이러한 불법 단체들 사이의 분쟁은 영역과 천연자원들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전체 주민들에 대한 장악력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청년 청소년들이 그들의 메인 타깃입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어린 소년들을 훈련시켜서 총과 권총으로 무장시킵니다. "그들은 새로운 게릴라들이 아니고 새로운 무장세력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경제의 붕괴 때문에 시골 지역에 만연한 절망과 퇴보의 부산물입니다. 그것이 청소년 징집의 온상입니다." 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지역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러한 새로운 단체들에 가입한 자들은 아무에게나 위협을 가하고 결국 누구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일정 영역에서 지도력과 통솔력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아무런 대화도 없어요. 오직 수많은 총알들만 있을 뿐이죠. 각 사람의 머리에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이 불법 단체들은 모든 걸, 모든 비즈니스를, 작은 거라 할지라도 다 장악하기를 원해요."라고 리서치팀은 말했습니다. "비즈니스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타깃이 될 수 있어요. 크리스천들을 포함해서요. 종종 크리스천들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과 고향을 떠나도록 강요받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교회의 필요들

거주지를 떠나 국내난민이 되는 이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미 콜롬비아 교회들은, 특히 시골지역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공동체를 떠나 가족과 함께 덜 위험한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남아있는 소수에게도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 도전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지역에서 기꺼이 사역을 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준비해야 하는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의 대량 이탈은 또한 교회에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주었습니다. 교인이 줄고 헌금이 줄어 사역을 지속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학살의 가장 큰 희생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두려움 속에 지내고 있어요. 우리 교회들은 비었습니다. 교역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강제로 마을을 떠나야 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찾을 수 있기를,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해주세요. 조금이라도 가능하다면요.” 라고 현장팀이 말했습니다.

### 교회가 게릴라들에게 상납을 해야 하는가?

아라우카와 카사나레와 같은 지역에, 갈취 협박과 불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90년대에, 갈취는 거의 매일 일어났습니다. 메타, 아라우카, 카사나레 지역의 상인, 목축업자, 농부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불법무장단체 FARC가 그 지역을 지배했고 그들의 법은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인다”였습니다. 그들은 집회, 방문, 전화를 통해 “바쿠나”(스페인어로 ‘백신’)를 요구했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흔히 알려진 용어입니다. 돈을 내놓으면 안전하고 안내면 납치를 당하거나 살해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슬프게도,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이 범죄가 줄어들어 약간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갈취가 아주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숨겨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중앙무대로 나타난 것은 갈취 사례들이 단순히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범죄행위를 유지하기 위한 자원들을 놓고 수단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그룹들이 다양화된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가 미친 경제적 타격과 또한 대량학살을 자행하는 이러한 그룹들 간의 세력다툼 때문에 주민들은 훨씬 더 취약해졌습니다. 교회가 그 영향을 받습니다.

8월에, ELN에 의한 갈취가 증가하고, FARC과 기타 무장조직들의 이탈자들의 활동이 아라우카에서 보고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이 ELN이 소집한 집회에 불려나가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응한 목회자들도 있고 거부한 목회자들도

도 있습니다.

“여러 목사들이 갔지요. 얼굴을 내밀어야 했으니까요. 우리, 나이 많은 목사들은 안갔어요. 우리는 알거든요. 일단 돈을 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계속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지요.”라고 오픈도어 파트너인 한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홀리오 목사님은 몇 년 간 갈취의 협박을 받았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범죄가 크리스천 가정들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습니다. 크리스천 가족들이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시 시작해야 하고, 교회는 비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일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떠나지 않고 남기로 선택한 이들은 지속적인 압박을 겪어야 하고 기도와 금식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고 강하게 세워주어야 했습니다.

교회는 결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느냐 마느냐? 많은 목회자들이 내는 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역을 통해 성도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사역을 통해 악의 공격에 지친 이 지역에 빛과 소망을 주려고 합니다. 한편, 다른 목회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어떠한 결과도 감내하기로 결정합니다. 갈취금을 내는 것이 믿음의 원칙에 반한다고 확고히 믿기 때문입니다. 불법적인 활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이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게릴라들에게 매월 돈을 바치는 것을 거부합니다. 사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의 이데올로기를 스폰서 해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라고 카타툼보의 선교사 페르난도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게 되면 교회에 큰 타격이지요 이렇게 떠나는 이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이들이고 활발한 교회 리더들이고 교회활동에 헌금을 하는 이들이니까요.”라고 그는 덧붙입니다.

**콜롬비아 교회가 불법상납을 거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인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들이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GAULA(개인자유를 위한 연합행동 단체들)에 의하면, 인구의 67%가 갈취를 당하며 이를 보고하지 않습니다. 게릴라들과 불법무장단체의 압력과 위협에 처한 콜롬비아 교회들과 특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콜롬비아 엔리케 목사님에게 듣다

**Q COVID19 팬데믹 동안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어떤 교훈을 얻으셨어요?**

**A** 올해 초 저희 수련회 주제가 “Be Still 잠잠하라” - 출애굽기14:13-14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용히 있도록 초청하신거예요. 출애굽기 뿐만 아니라 시편 46:10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처음에, 우리는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것으로만 생각했지요. 그런데 팬데믹 봉쇄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때를 위해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몰랐지요. 우리는 너무나 사역활동 지향적이어서 항상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용한 시간이 우리를 돌아보게 했고, 이 모든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때로는 초조하고 절박해졌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기억했습니다: 잠잠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을 보라.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Q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개인적, 혹은 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A** 봉쇄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모두 수련회 말씀을 기억했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팀원도 이렇게 말하더군요: “목사님,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목사님이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잠잠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어떻게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지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건 우리의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달았어요. 주님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 위에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일하시는 어떤 한가지 방식에 익숙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말하자면, 어떤 상자 속에 가둘 수 없다는 걸 가르치고 계세요. 주님은 주님의 방식대로 일하십니다.

**Q 팬데믹 상황 속에서 특별히 어려웠던 것을 들자면 무엇인가요?**

**A** 가장 어려웠던 것은, 우리 각자가 스스로를 훈련해야 했던 점 말고는, 박해받는 교회의 성도들이, 폭력 상황 하에서, 강제로 끌려가 그 지역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해야 하는 걸 보는 것이었습니다. 불법단체들(게릴라들과 여러 무장단체들)이 있는 여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목사님들을 경비원으로 세워놓았다는 것들을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물론 보건방역 문제로만 보면 문제가 없겠조. 그러나 이 불법단체들이 강제로 주민들을 통제할 때는 불법구금으로 보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불법단체들이 시키는 일을 해야하는 걸 보는 게 매우 고통스러웠어요. 이러면 나중에 목사님들이 성경을 전할 때 합법적 권위를 잃게 되지요...

**Q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배우게 된 교훈은 무엇일까요?**

**A** 교회로서 우리가 배운 것 중의 하나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우리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좀 자체적인 관심에 갇혀 있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더 큰 사명에는 헌신되지 않았던 거 같아요. 세상에다가 가고 하지 않고 우리 교인들만 바라봤어요. 팬데믹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세상을 보라고 소리치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교회를 두신 이 세상을 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콜롬비아 교회는 오랫동안 외부로부터 받기만 하는 교회였어요. 교회의 사명과 세계선교에 그리 많이 헌신되지 않았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데 더 많이 참여하도록 초청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 순교자 목사님 딸 '다니엘라' 이야기

이번 크리스마스는 전세계 사람들이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니 너무 감사해요

2019년 8월10일, 다니엘라의 아버지 플리니오 목사님은 크리스천 목사라는 이유로 불법 무장 게릴라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아내인 알바 사모님과 두 자녀-5살 세바스찬과 12살 다니엘라만 남겨졌습니다. 오픈도어는 사모님과 두 자녀를 방문해 위로하고 콜롬비아 어린이센터로 초청해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작년 성탄절을 보낼 수 있게 하였습니다.

### 평범한 마을

다니엘라 가족이 사는 카우카시아(Caucasia)는 인구 10만 명의 작은 도시입니다. 여기서는 삶이 느리고, 조용하고, 단순해 보입니다. 거리는 포장과 비포장 도로가 섞여 있습니다. 어떤 집들은 홍수를 피하기 위해 높게 짓기도 합니다. 차가 별로 없는 거리에는 아이들이 뛰놀고, 과일장사가 카트를 끌고 갑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와 보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는 단지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만으로 크리스천이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구타를 당하고, 고향마을에서 추방을 당하고, 혹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 두 발의 총성

두 발의 총성이 울리고, 집 안에서 뉴스를 보던 플리니오 목사님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집에 목사님만 계셨던 건 아닙니다. 다니엘라와 세바스찬은 다른 아이들과 마당에서 놀고 있었고, 알바 사모님은 주방에서 다른 분들과 함께 주일에 팔 닭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총소리를 듣고 집안으로 뛰어든 다니엘라는 아버지가 총에 맞아 숨진 것을 보았습니다.

### 다니엘라

다니엘라는 수줍음이 많은 소녀입니다. 낯선 손님이 오면 엄마 뒤에 숨곤 하지요. 그래도 얼굴에는 손님을 환영하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같은 또래의 여느 소녀들과 다를 게 없지요.

다니엘라가 좋아하는 한 가지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다니엘라는 생기가 돕니다. “가끔, 저는 하늘과 나무들을 쳐다보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라고 다니엘라는 말합니다. 이 사랑스러운 소녀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일찍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살해되고, 다니엘라는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워했다고 엄마 알바 사모님은 말합니다. “다니엘라는 울기는 해도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요. 아빠가 너무 보고싶다는 말은 하지요”... “우리 아들은 다 표현해요. 엄마랑 누나를 많이 의지하지요. ‘엄마랑 누나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나만 혼자 남게 될 거잖아’ 라고 말하곤 하지요.”, 알바 사모님은 딸 다니엘라도 마음 속에 두지 말고 말로 표현을 해서 털어버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니엘라에게 언제가 슬프냐고 물으니 얼굴색이 변더니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생각날때요

CUANDO PIENSO EN MI PAPA.”

한참 후, 우리는 다니엘라에게 아빠가 살아 계셨으면 다니엘라가 앞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음,” 다니엘라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요.”

인터뷰 당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라에게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묻자, 다니엘라는 기분이 더 좋아져서 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건 기쁜 순간이에요. 우리는 가족이 모두 같이 축하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다같이 먹어요. 나한테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고요, 또 교회 성도님들과 다같이 모여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내던 게 기억나요”

우리는 다니엘라와 가족을 오픈도어 콜롬비아 어린이센터로 초청했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에서 벗어나 휴식을 갖고 트라우마 상담도 받고 시간을 보내며 크리스마스를 축하할 수 있도록 초청했습니다. 다니엘라는 아주 좋아했습니다.

### 안식의 장소

우리가 떠날 때, 거리에는 무장한 경찰관이 녹색의 위장복을 입고 거리 곳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 그곳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다니엘라 집을 떠나 비행기를 두 번 타고 다시

육로로 긴 여행을 한 후에야 어린이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박해받는 콜롬비아 성도 자녀들의 안식처이고 때로는 단기간 쉬어 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도착한 시간은 밤 11시였습니다.

한밤중에 도착한 어린이센터의 환영은 아름다운 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스텝과 어린이들이 센터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박수와 노래로 다니엘라 가족을 환영해주었습니다. 커다란 환영현수막도 들고 있었습니다. 몇몇 스텝들이 다니엘라와 엄마와 세바스찬에게로 다가가서 꽃을 주고 ‘허그’ 해줍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모르는데 모두 우리를 위해 나온 걸까?’ 다니엘라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있을 줄 몰랐어요.” 나중에 다니엘라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우리를 환영해주는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놀랐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사랑해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니 정말 행복했어요.”

며칠 후, 다니엘라에게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니엘라는 말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전세계 사람들이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니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걸 나는 알 수 있으니까요.”

다니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과 또 다른 박해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달라고 요청하자, 다니엘라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소녀 다니엘라가 한 말(아래)은 순교하신 아빠의 삶을 기억나게 합니다

**“Sé valiente y fuerte,  
sigue confiando en el Señor.”**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을 신뢰하라”



## PK소년, '티모테오' 이야기

### 티모테오는 이제 안전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것입니다

11살 소년 티모테오는 평상시처럼 방과 후 집으로 돌아오던 중, 군복 차림의 무장군인이 자신을 부르는 것을 봤습니다. 티모테오가 사는 마을에서 무장 게릴라들을 보는 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티모테오 같은 원주민 소년에게는 두려움 뿐 아니라 동경의 대상입니다. 많은 무기를 소유하고 마약밀매를 하며, 정부군과 전쟁을 치르는 등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지만 돈과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처럼 보여서 그러한 삶을 동경하게도 만듭니다. 이제 티모테오의 삶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 독살과 다양한 위협

티모테오는 콜롬비아에서 정령을 숭배하는 부족에서 자랐습니다. 부족사람들은 만물에 정령이 깃들어 있어서 일상의 삶을 지배한다고 믿었고, 이들에게 자연세계와 영적인 세계의 구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들은 전통의식을 행하면서 이 정령들을 숭배했습니다. 티모테오 가족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부족 의식을 따르지 않고 돈도 더 이상 바치지 않자,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부족사람들은 티모테오 가족이 자신들의 전통을 버렸다고 여겼고 이로 인해 정령들의 분노를 살까봐 두려웠습니다. 티모테오의 조부가 가족 중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 됐고, 부족 리더들은 그를 독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믿음은 더 강해졌고 그리스도를 결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티모테오의 아버지는 목사가 됐습니다. 티모테오는 부족의 박해 뿐만 아니라 날마다 게릴라들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티모테오는 어린시절 거리에서 형제, 친구들과 어울려 놀곤 했습니다. 그러나 게릴라가 마을에 들어오자 모든 게 변했습니다. 게릴라 조직에 들어오라고 자주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거리에서 노는 것도 아이들에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게릴라들은 온갖 유혹거리를 이용해 아이들을 조직에 가입시키려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형편에 맞게 돈, 음식, 약, 집 등을 제공해주겠다고 유혹합니다. 때로는 강제로 아이들을 조직에 가입시켰습니다.

티모테오의 아버지는 부족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따르면 게릴라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아버지는 게릴라들의 분노를 샀고, 게릴라들을 반대했기 때문에 살해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티모테오의 아버지는 이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게릴라들은 특히 티모테오를 조직에 가입시키려고 했습니다.

#### 티모테오의 선택

티모테오는 어떻게든 게릴라들을 피하려고 애썼지만 때때로 이들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방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게릴라 조직원이 그에게 접근해서 더 나은 삶을 보장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제안은 솔깃하게 들렸습니다. 가족은 부족에서 소외되었고 집도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게릴라는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이 돈이면 형편이 어려워 살 수 없었던 모든 것을 살 수 있었습니다. 게릴라는 또한 조직의 일원이 되면 힘을 가지게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가족은 더 이상 부족에서 소외되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가 게릴라가 되면 부족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순간 그의 마음을 스쳐갔지만 티모테오는 거절했습니다. 게릴라 조직에 가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예

수님은 세상의 부와 힘보다 더 소중한 분이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생각나서 티모테오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삶을 보장해준다는 이런 유혹은 여전히 그의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었습니다.

#### 게릴라들로부터 탈출

티모테오 아버지는 아들이 게릴라 조직에 가입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아들이 결국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강제로 조직에 가입하게 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특히 자신이 게릴라 활동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었기 아들이 그들의 전리품같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때 오픈도어가 운영하는 콜롬비아의 박해 받는 아이들을 위한 기숙학교, “아동센터”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티모테오가 센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신청서를 보냈고 간절히 기다린 끝에 입학이 허락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뿔 듯이 기뻐했습니다. 티모테오가 아동센터에 입학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크다는 증거였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었는데 갑자기 입학이 허락됐어요. 아버지는 상황이 몹시 힘들어서 그저 입학 신청서를 보냈을 뿐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아무것도 계획한 게 없었어요.”

티모테오가 아동센터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게릴라들로부터는 안전했지만 여전히 그 조직에 가입하려는 생각이 한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티모테오는 어떤 때는 게릴라 조직원들과 함께 총을 매고 다니며 부와 힘을 과시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런 생각들이 바뀌었습니다. 아동센터에서는 생물학과 수학 뿐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트라우마 치료를 받으면서 가족들이 겪은 박해로 인해 자신이 받은 모든 상처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롭게 열정을 쏟을 대상을 찾았습니다.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기타를 연주하게 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센터의 규칙이 좋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줬거든요.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걸 배웠

어요. 진리의 말씀을 계속 읽고 싶어졌어요.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됐고, 이제 주님을 위해 살거든요.”

#### 복음을 안고

티모테오가 센터에 온 이후에도 그의 부모님은 목숨을 걸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 덕분에, 티모테오 부모님은 아들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티모테오도 부모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저는 복음전도자로 마을을 방문해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 처럼이요. 주님이 그러셨다면 저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티모테오는 아동센터를 졸업했고 이제는 산업공학을 공부할 생각입니다. 그는 학업을 마치고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힘든 아이들을 돕고 싶어합니다. 예전의 자신처럼 게릴라 조직에 가입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소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티모테오는 살던 곳으로 돌아가려는 그의 계획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복음을 전할 힘을 주시고 저를 보호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게릴라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 안전한 크리스마스

티모테오의 가족은 기독교인이 되면서 부족의 전통의식을 버리고 이제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합니다. “저에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가족과 삶을 나누고, 사랑을 표현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지요. 교회에서는 철야기도를 합니다. 돈이 없어서 집에 크리스마스 장식은 못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누는 삶이니까요.” 몇 년 전만 해도 티모테오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었습니다. 게릴라들은 그에게 부와 힘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는 더 나은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유혹의 상황에서 그를 보호하셨고, 이번 크리스마스에 티모테오는 안전하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는 이 일을 가능하게 하며, 다른 박해 받는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안전한 집과 밝은 미래를 만들어 주는데 일조할 겁니다.



## 콜롬비아 원주민 마을 교회 이야기

주일 아침, 콜롬비아의 산 페드로 마을의 원주민 크리스천 가브리엘은 그날 인도할 예배 준비를 위해 분주합니다. 집을 떠나 숲 속의 외딴 장소로 갑니다. 사람들에게서 감춰진 장소입니다. 이 마을에서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박해에 직면함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마을의 내부적 문제들 때문에 크리스천들에게 잠시 조용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마을의 평화를 위해 크리스천들도 마을의 모임과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전통 의식들에 참여하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소환을 당하여 심문을 받고 처벌을 받거나 구금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 성도들은 비밀 장소에서 모입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가브리엘은, 예배를 준비한 후에 약속된 장소에 가서 모여 있는 성도들을 찾습니다. 이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오픈도어 사역자 라울도 약속된 예배장소로 갔습니다.

▶오전 10:00 - 11:00 : 산 위에서 첫 예배가 열립니다. 숲 속 한 가운데입니다. 바닥에는 나뭇가지들을 놓고 앉습니다. 성인 남자, 여자들과, 어린이들이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도 모인 것입니다.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오후 14:00 - 17:00 : 두 번째 예배는 또 다른 장소에서 열립니다. 벽이 없는 오두막입니다. 나무로 틀을 만들고 짚으로 지붕을 덮었습니다. 이 오두막은 농장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요. 거기서 이들은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브리엘이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후 18:00-19:30 : 세 번째이자 마지막 주일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들은 오픈도어로부터 받은 모든 후원과 도움에 감사를 전하는 순서도 준비했습니다. 오픈도어를 대표해서 라울 형제가 인사 말씀을 나누고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성도 분의 농장 안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마을 성도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구하고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예배 시간과 장소들은 변합니다. 어떤 때는 밤에 성도들 집에서 모입니다. 다른 때는 산 속에서 모이고, 또 어떤 때는 커피농장에서 모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픈도어는, 커피 세척과 건조, 커피나무 심기, 물 운송 수단 제공 등을 통해 이 원주민 성도들을 돕습니다. 원주민 성도들이 마을 공동체와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도움은 이곳의 형제자매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어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원주민 마을 크리스천인 길베르토 형제는, 이러한 후원 물자를 통해 많은 불신자들이 크리스천들에게 관심을 보이며 다가오고 모임과 예배에 참석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 코로나19 위기와 기도 요청

콜롬비아 원주민 마을의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원주민기관(ONIC)의 계속적인 캠페인으로 기독교 복음주의 선교가 집중 포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목회자들이 성도를 돌보는 활동을 허가했지만 목사들과 선교사들은 이 원주민 지역을 다닐 수 없었습니다. 원주민 지도자들이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들을 막아놓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현지 경찰과 불법 무장단체들 또한 출입을 감시하며 목사와 선교사들의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콜롬비아 남서부, 카우카 지역의 한 원주민 목회자는 구호식량과 다른 여러 생필품들을 원주민들에게 전달하려고 했으나 검문소에서 제지당했습니다. 남동부 원주민 교회 사역을 하는 또 다른 선교사는 부족의 주장들이 종교지도자들을 세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주민 리더들은 이 선교사에게 오후 3시까지만 활동을 허가했다고 합니다. 그의 교인들은 먼 곳에 살고 오후까지 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3시 이전에 심방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원주민 마을에서 크리스천 선교 사역을 더 심하게 제한할 가능성은 처음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지난 5월, 아마존의 한 마을(Letizia)에서, 코로나19 감염자수가 심각하게 많아졌고 사망률도 높았습니다. 5월11일, 콜롬비아 보건당국은 아마존 지역에서 발견된 코로나19 감염자 718명 중에서 1명 빼고 모두가 이 마을(Letizia)에서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님께서 원주민 크리스천들과 교회를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또한 생활의 필요를 공급해주시기를 기도해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원주민 교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기도해주세요.

이 지역은 생활여건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79,000명 주민의 60~70%가 조상대로 내려오는 여러 전통 부족에 속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을 알고 교회를 이룬 원주민 크리스천들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계속 교회가 성장하며 원주민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한국오픈도어 연중캠페인

"단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고린도전서12:26

**'월 10,000₩ 개인후원자' 500명,  
'월 50,000₩ 후원교회' 100교회  
기다립니다!**

전세계적인 환경이 점점 더 기독교 박해지역의 성도들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크게 만들고 있고 축복받은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부담과 책임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오픈도어는 더욱 적극적으로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한국오픈도어는 지정현금 90프로를 박해받는 현지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고 사무실운영비를 위한 모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초창기와 같은 적은 수의 전임 인력으로 사무실을 유지하느라 다각적인 홍보와 개발업무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국오픈도어의 운영과 개발을 위한 월 1만원 정기후원자, 월 5만원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시고 주위에 소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한국오픈도어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름(예금주)		생년월일 (예금주번호)		전화번호	
출금은행		출금계좌번호			
출금액	10,000₩	출금일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 서명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010-7548-3171)

\*직접 이체하실 경우 후원계좌 : 국민은행 029301-04-167093(한국오픈도어선교회)

후원요청

**오픈도어 코로나(COVID-19)긴급 구호**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남미,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곳곳의 성도들에게  
구호 식량과 물품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구호에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해주세요!

**코로나후원계좌 SC제일은행 221-10-011008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희망의 선물 2020 캠페인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2020**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훈련	선물 1	아프리카의 박해 국가 어린이들에게 성경 전달	×	5,000원	=	원
	선물 2	시리아의 제자훈련 프로그램	×	70,000원	=	원
	선물 3	중동의 목회자 훈련 사역	×	150,000원	=	원
생존	선물 4	위험에 처한 무슬림 국가의 성도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5	탈북자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50,000원	=	원
	선물 6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상담 사역	×	80,000원	=	원
여성	선물 7	박해의 최전선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영육간의 돌봄 제공	×	30,000원	=	원
	선물 8	무슬림 국가에서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80,000원	=	원
어린이	선물 9	중앙아시아의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20,000원	=	원
	선물 10	박해 최상위 10개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서적 전달	×	10,000원	=	원
난민	선물 11	중동의 크리스천 난민들에게 대피소와 구호품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12	한 사람의 난민의 훈련과 의료적 돌봄	×	40,000원	=	원
총 계					=	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참여안내

보내주신 헌금은 후원자분들의 뜻에 따라 각 선교지에 보내어집니다.

1. 전달하려는 선물에 표시하고 총 선물 금액을 계산합니다.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캠페인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 (02-596-3171) 또는 이메일 (odsk@opendoors.or.kr)로 선물 신청 내역을 알려주세요.
4. 정기후원으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 번호:	이름(예금주):	생년월일(예금주번호):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출금동의서명:

작성하신 후에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전화: 010-7548-3171)



**Open 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1:23)

##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모든 오픈도어 가족 여러분께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지난 1년간 주님의 은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컸습니다. 박해 지역에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기도로 물질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힘을 다해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한국오픈도어가 되겠습니다.

### “이라크 어린이들의 성탄절 기도”



**파크리 (11세)**

“나는 이 세상에 테러리스트  
들이 없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기를 기도했어요.”



**디마 (9세)**

“나는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어요.”



**마리나 (8세)**

“나도 다른 나라 어린이들처럼  
평화와 사랑 속에 살면  
좋겠어요.”



**마크 (10세)**

“모술에 있는 우리 교회에  
돌아가고 싶어요...”

\_이슬람S때문에 고향 모술을 떠나 7년째 국내난민으로 살아가는 어린이들 - 작년 성탄예배에서.